

## 제주도 수명장자 징치담의 자료 양상과 신화적 성격

권태효\*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수명장자 징치담의 자료 양상과 성격
3. 〈튀카온 징치담〉과의 비교를 통해본 수명장자 징치담
4. 수명장자 징치담의 신화적 성격과 의미
5. 마무리

### 국문초록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수명장자는 신에게 불경하고 부모에게는 불효하며,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이다. 이런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이야기는 태초의 창세과정에서 생기는 혼돈을 정리하는 과업의 하나로 나타나며,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징치담은 여타 신화소보다 유동적이고 변형이 심한 신화소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정적이기보다는 탈락이나 축약이 가능한 신화소이며, 징치 주체나 징치 동기, 징치 방식 등에 있어서도 자료들마다 편차가 아주 심해 전승 과정상 많은 마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천지왕본풀이〉의 자료 각편을 살펴 수명장자 징치담이 필연적인 화소가 아니며, 그 형태가 수명장자 징치담이 없는 각편, 수명장자 징치담이 특히 발달된 각편, 수명장자의 악행 위주로 축약된 각편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이 인류 재편의 성격을 지닌 홍수신화적 면모가 약화 또는 혼탁되면서 창세신화에 편입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파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악했다.

아울러 인물 설정과 사건 전개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그리스신화의 튀카온 징치담과 비교하면서 〈튀카온 징치담〉은 홍수에 의한 인류 재편의 신화적 성격을 지닌 자료임에 비해 수명장자 징치담은 단순히 악인 개인의 징치로 끝나고 말아 그 신화적 성격이 막연하게 변모되었지만, 육지의 여러 무속신화나 전설의 장자 징치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성격상 인류 재편의 성격을 지닌 신화소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천지왕본풀이, 창세신화, 홍수신화, 수명장자, 장자 징치담, 튀카온 징치담.

## 1. 문제의 제기

(〈천지왕본풀이〉에는)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치하는 신화소가 있는데, 이 신화소의 개입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매우 이례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 신화소가 〈천지왕본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대체로 악행을 징치한 결과, 특정한 생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단순한 기원신화를 넘어서서 인간세상에 만연한 악을 징치하는 홍수신화(flood myth)의 흔적이 있다. 직접적으로 홍수신화는 거론이 되어 있지 않으나, 매개적인 자료인 장자의 악행을 다룬 〈장자뚫전설〉을 끼워 넣어서 생각한다면, 일견 홍수신화의 흔적이 이처럼 변형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수명장자 징치담이다.<sup>1)</sup>

위의 인용 부분은 김현선이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를 살피면서 수명장자 징치담의 자료 성격과 신화적 면모를 단적으로 잘 제시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수명장자 징치담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언급들이 나타나 있다.

첫째, 수명장자 징치담이 천지왕본풀이의 전체적인 스토리나 구성을 두고 볼 때 이례적인 신화소라고 지적했다. 이 점은 수명장자 징치담이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연, 대별왕과 소별왕의 천지왕 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이승과 저승의 차지의 굵 가르기 등의 여타 신화소들과 연계성이 필연적이지 않으며, 창세신화 구성에 있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한 신화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천지왕본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고 지적

1)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比較民俗學』 28, 비교민속학회, 2005.2, 250면.

한 점이다. 실상 〈천지왕본풀이〉 채록본을 살펴보면 수명장자 징치담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다. 자료마다 악행 양상과 징치 과정도 제각기 나타나고, 각 편에 따라 생략되거나 악행 부분만 제시한 채 압축된 양상을 보이는 자료들도 많다. 곧 수명장자의 악행과 징치 방식, 그 징치 결과가 우리가 으레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 그 편차도 아주 심한데, 자료 살피기를 소홀히 한 탓에 자료의 실상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셋째, 그렇다면 수명장자 징치담의 신화적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이다. 장자의 악행을 징치하는 〈장자뚫전설〉을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홍수신화적 성격이 있는 자료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단편적이지만 언급이 있었던 부분으로, 대체로 공감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증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이 글은 위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를 단초로 삼아 수명장자 징치담의 자료 실상과 성격을 파악하고자 마련한 글이다. 수명장자 징치담에 대해서는 〈천지왕본풀이〉에 포함된 하나의 신화소로 파악하고 말아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곧 독자적인 논문보다는 창세신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 논의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글 중에는 수명장자 징치담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성과가 있기도 하다. 먼저 김현선은 제주도 창세신화 여러 각편들을 모아 비교하면서 그 양상이 다른 신화소와 결합하면서, 그리고 그 신화소 자체 내에서도 변화가 극심하여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과 천지개벽 신화소와 배타적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고,<sup>2)</sup> 박종성은 수명장자 징치담을 육지의 장자 징치담과 관련지으면서 천신적 존재와 대결을 벌이는 지상의 권력자라는 대결적 구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sup>3)</sup> 한편 신연우는 각도를 달리해 악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에 접근한 바 있다.<sup>4)</sup> 〈천지왕본풀이〉를 다루면서 수명장자 징치담에 대한 일정한 고찰 및 해석이 이루어졌지만<sup>5)</sup> 위에서 제시된 세

2) 김현선,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3)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현암사, 1999.

4) 신연우, 「제주도 초감제 신화와 뿔의 문제」, 『한국무속학』 29, 한국무속학회, 2014.8.

5) 이외에 〈천지왕본풀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글로는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들어 새로 추가된 다수의 각편들이 있어 이것을 포함한 자료 실상을 다시금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 신화적 성격 또한 관련 자료와의 연계성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가장 최근에 발간된 서순실 심방의 무가 채록집을<sup>6)</sup> 비롯해 수명장자 징치담을 중심으로 <천지왕본풀이>의 각편들을 살펴 정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수명장자 징치담이 없는 각편, 수명장자 징치담이 특히 발달된 각편, 수명장자의 악행 위주로 축약된 각편 등으로 나누어 자료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둘째, 그리스신화에는 수명장자 징치담과 인물 성격이나 사건전개가 아주 흡사하면서도 홍수범람의 발단이 되기도 하는 <뤼카온 징치담>이 있다. 이런 <뤼카온 징치담>과의 비교는 수명장자 징치담의 신화적 성격이나 의미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명장자 징치담을 징치 원인과 징치 과정, 징치 결과 등을 중심으로 <뤼카온 징치담>과 비교하여 단순히 <장자 못전설>을 매개로 홍수신화적 성격을 찾았던 데에서 보다 구체적인 신화적 성격과 면모를 찾으려 하겠다.

## 2. 수명장자 징치담의 자료 양상과 성격

<천지왕본풀이>에 포함되어 있는 수명장자 징치담은 인간세상의 혼란을 구원해줄 대별왕·소별왕의 출생담 부분을 구성하는 중요한 신화소이다. 인간세상에서 여러 악행을 저지르는 수명장자를 하늘의 천지왕이 내려와 벼락과 우레, 불로써 징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채록본들을 살펴보면 수명장자가 어떤 악행을

적 의미], 『탐라문화』 3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이 있다.

6)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5.

저지르는지와 천지왕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징치를 하는가 하는 그 과정이 주된 내용을 이루기는 하나 모든 자료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창헌본〉, 〈박봉춘본〉, 〈이무생본〉, 〈정주병본〉, 〈양창보본〉 등과 같이 수명장자 징치담이 확장되어 잘 나타나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이중춘본〉과 같이 총맹부인과의 결연담 위주로 전개되면서 징치에 대한 부분은 간략히 축약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자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고대중본〉이나 〈강일생본〉은 수명장자 징치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양상을 주요 채록본들을 제시하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 〈천지왕본풀이〉 주요 채록본 현황

	자료명	수록책명	구연자	채록자	간행년도
가)	천지왕본	풍속무음		문창헌 필사	1928
나)	천지왕본풀리	조선무속의 연구(상)	박봉춘	赤松智城·秋葉隆	1937
다)	천지왕본	제주무가집		김두원 필사	1963
라)	천지도엽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	고대중	장주근	1973
마)	베포도엽침	제주도에서 얻은 몇 가지	강일생	임석재	1974
바)	천지왕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정주병	현용준	1980
사)	천지왕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무생	진성기	1991
아)	천지왕본풀이 <sup>7)</sup>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이중춘	문무병	1998
자)	천지왕본풀이	이용옥 심방 본풀이	이용옥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2009
차)	천지왕본풀이	양창보 심방 본풀이	양창보	허남춘 외	2010
카)	천지왕본풀이	고순안 심방 본풀이	고순안	허남춘 외	2013
타)	천지왕본풀이	서순실 심방 본풀이	서순실	허남춘 외	2015

7) 이중춘 심방으로부터 채록한 〈천지왕본풀이〉는 여러 편이 있다. 문무병,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도·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김현선, 「〈베포도엽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에 실린 자료도 있지만 동일 심방에 대한 채록본이고 내용 또한 상이하지 않아 가장 먼저 발간된 자료만

지금까지 채록된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채록자료는 위의 표와 같다. 그런데 이런 〈천지왕본풀이〉 각편에 대해서는 ‘수명장자 징치’를 중심으로 자료 양상을 꼼꼼하게 비교 정리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김현선의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라는 글이 그것으로, 가)에서부터 사)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면서 ‘수명장자 징치’ 신화소 양상을 정치하게 살피고 있다. 수명장자 징치 부분을 징치 동기, 징치 과정, 징치 결과 등으로 정리 비교하면서 〈천지왕본풀이〉에서 다른 신화소와 결합과정이나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내용 그 자체에도 차이가 크기에 아주 복잡한 현상을 보이는 신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각편을 면밀히 살펴 개개 자료들의 양상과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어 의의가 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이미 글이 발표된 지 오래 되어 그 뒤에 채록된 아)에서 타)까지의 자료 양상이 반영되지 못했고, 각편들 간의 변별요소를 중심으로 잘 정리된 바 있으나 큰 틀에서 전체 자료들 사이의 양상에 대해서 지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12편의 각편 전체를 두고 자료 양상을 살피기로 하겠다. 특히 수명장자 징치담 자체가 없는 자료도 있고 수명장자의 악행 위주로 축약된 양상을 보이기도 해서 수명장자 징치담이 충실히 잘 나타난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명장자 징치담 전체 자료의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 a. 수명장자 징치담이 없는 자료 : 라), 마)
- b. 수명장자 징치담이 뚜렷한 자료 : 가), 나), 다), 바), 사), 차)
- c. 수명장자 악행 위주로 축약된 자료 : 아), 자), 카), 타)

a의 수명장자 징치담이 없는 경우는 그 부분이 없을만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까닭에 굳이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대증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천지왕아들이 甲午王께 장개들 때 집쁜 謝禮로서  
 혼하늘에 해도 하나 들도 하나 내보내젠하니  
 地보왕이선 기쁜 생각으로 혼하늘에 해도 둘 내보내고  
 들도 둘 내보내니 밤이는 人間百姓이 곳아서 죽고  
 낮이는 人間百姓이 쫓아 죽을 때에<sup>8)</sup>

위의 밑줄 친 부분을 보듯이 수명장자 징치담은 필연적이기보다는 선택적  
 일 수 있는 신화소이다. 곧 천지왕(아들)이 장가가는 과정에서 수명장자 징치  
 담을 넣어서 상황하게 확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략히 결혼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만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구성이나 사건의 전개에 있어 크게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  
 다. 한편 <강일생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별왕 소별왕의 탄생에 총망부인  
 또는 갑오왕에 해당하는 배우자도 없이 “옥황의 천지왕 아들이 삼 성제가 솟  
 아진다”라고 하고 있다.<sup>9)</sup> 대별왕과 소별왕의 출현 자체 및 복수로 출현하는  
 일월을 정리하는 행위가 중요할 뿐이다. 곧 a에서 보듯 수명장자 징치담은 반  
 드시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신화소는 아님을 보여주는 각편들이다.

b는 수명장자 징치담이 크게 확장되어 있는 자료들이다. 가), 나), 다), 바),  
 사), 차) 등 <천지왕본풀이>에서 적지 않은 자료들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이 확  
 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신화소가 이질적인 요소로 우연히 포함된 것  
 은 아니며,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나름의 신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나  
 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b 자료들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수명  
 장자를 징치하게 되는 동기이고, 둘째는 징치과정, 셋째는 징치결과이다.

먼저 징치 동기를 살펴보면 자료들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부모를 학대하고  
 제사를 모시지 않는 형, ② 부(富)를 기반으로 곡식의 장리를 놓아 가난한 사

8) 장주근, 『韓國의民間信仰-資料篇』, 동경: 금화사, 1973, 310면.

9) <베포도업침>이라고 제목이 명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인 일월조정과 인세차  
 지 경쟁이 다 들어있어 <천지왕본풀이>가 합쳐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람들을 괴롭히는 형, ③ 신에 대해 불경(不敬)하는 형 등의 형태를 보인다.<sup>10)</sup>

①의 부모를 학대하고 제사를 모시지 않는 형은 가)의 <문창헌본>과 다)의 <김두헌본>, 사)의 <이무생본>, 차)의 <양창보본>에서 나타난다. 이들 각편에서는 인간세상에서 수명장자에게 끼니를 얻어먹지 못하자 죽어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밥을 얻어먹었는데, 저승에서 그 사실을 염라대왕, 옥황상제, 천지왕 등 천상의 신들이 알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불효와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수명장자의 악행으로 제시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를 얻어먹지 못해 별주러 가는 화소는 <천지왕본풀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만이본풀이>에서도 유사한 신화소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곧 사만이가 백골만을 섬기고 친부모 조상인 자신에게는 기제사는 물론이고 물 한 모금 주지 않는다며 탄원한 데 따른 열시왕의 징치로서 삼 사자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모조상을 공경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징벌이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다른 본풀이와도 넘나들이 있는 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①의 형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신적 존재가 그 악행을 미리 알고 지상에 내려와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곧 천상신이 그의 악행을 듣고 인간세상의 악인을 징치하고자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는 동기가 되는데, 이 점은 <장자못전설>이나 뒤에서 살필 그리스 <뤼카온 징치담> 등 홍수 신화적 성격의 자료에서 물로 징치하는 그 동기와도 상통하는 모습이다.

한편 ①의 형에서도 가)의 <문창헌본>이나 차)의 <양창보본> 같은 경우는 ②형의 곡식을 빌려가는 박우왕에게 쌀과 흰모래를 반반씩 섞어주는 악행이 다시 첨언되기도 해서 그 악행의 양상을 거듭 제시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②의 부(富)를 기반으로 곡식의 장리를 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형

10) 수명장자의 악행에 대해서 이들 세 가지로 보는 것은 신연우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연우, 앞의 글, 145-149면.

11)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a, 65면. 이런 양상을 보이는 자료로는 고대중의 <冥監本解>와 이충춘의 <명감본풀이> 등이 있다. 장주근, 앞의 책;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은 수명장자의 악행을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자료로 대표적인 것은 <정주병본>으로 천지왕이 총맹부인과 결연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자 총맹부인이 수명장자에게서 모래가 섞인 양식을 꾸어 저녁을 대접하는데, 모래를 씹고는 그 자초지정을 듣고서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②의 형태는 ①과 ③형으로 나타나는 자료 중에서도 악행이 겹쳐 나타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아)의 <이중춘본>으로 대표되는 축약된 양상을 보이는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수명장자의 악행으로 제시되고 있어 가장 일반적인 수명장자의 악행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③의 신에 대해 불경(不敬)하는 형으로는 <박봉춘본>을 들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천신에게 대놓고 도발하는 불경을 저지른다. 이런 수명장자를 껴썬히 여겨 천지왕은 인간세상으로 일만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다.

인간이 수명장자 사육는데, 무도막심하되  
말 아홉 쇠 아홉 계 아홉이 있어서, 사나우니  
인간사람이 욕을 보아도, 엇질수 업사육는데  
수명장자가 하로는 천왕께 향하야 아뢰되  
이 세상에 날 잡아 갈 자도 있으리야 호답을 하니  
천주왕의 괘심히 생각하야, 인간에 내려와서  
수명장자 문박개 청버드낭 가지에 안잔  
일만군사를 거나리고 승험을 주되 (...)12)

여기서 보면 수명장자가 악한 인간이라는 것만을 부각하고 그 악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곧 그의 악행도 악행이지만 그보다도 밑줄 친 것처럼 천왕을 우습게 여기고 도발적인 언사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잡으러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치 동기가 수명장자의 악행보다는 신에 대한 불경 또는 도전에 대한 천지왕의 응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여타 자료에서도 부모를 학대한다거나 모래 섞은 쌀을 빌려주어 부

12)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의 무속(상)』, 동문선, 1991, 288면.

를 축적하는 등과 같은 악행을 범하는 것이 징치 동기로 나타나지만 징치과정에서 천지왕과 맞서 대결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그 징치가 신에 맞서거나 도전하는 것에 대한 징치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격은 홍수신화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곧 인간의 악함 또는 신에 대한 불경 때문에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선택된 인류에 의해 새로운 인간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과 같은 성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봉춘본>과 <정주병본>에서 수명장자를 징치한 결과로 수명장자 및 그 가족들이 모기, 파리, 빈대, 팔벌레 등의 벌레와 소리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악인의 징치를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주병본>에서 손가락을 끼워 팔벌레를 만든다거나 굵은 부리로 물을 어렵게 먹도록 소리개가 되도록 만드는 등 그 악한 행위와 연계해 그에 알맞은 벌레나 짐승으로 만드는 것으로, 포효하며 도망가는 모양에 알맞도록 뿔카온을 늑대로 만든 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곧 악행을 범하는 존재를 그에 걸맞은 벌레나 짐승으로 변화시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로 살도록 하는 징벌의 의식이 맞아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징치 방식은 자료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화덕진군 등 천상의 사자를 불러 불로 징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징치과정을 좀더 세분하여 정리해보면 1단계로는 군졸을 내려보내 잡아오게 하거나 황소를 지붕에 올려 지붕을 파괴하고 불 댄 솔이 저절로 마당을 걸어가게 하는 등 기이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 겁을 주지만 이 수단으로 징치되는 경우는 드물다.<sup>13)</sup> 그 뒤 2단계로는 수명장자에게 무쇠철망을 씌워 머리가 깨질 듯 고통스럽게 하자 도끼로 그 철망을 부수고자 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 화덕진군과 벼력스제 등을 불러 불로써 그 집을 태워 멸망시키도록 한다. 곧 수명장자 징치는 대체로는 어떤 흉험이나 이적을 보이는 것으로는 통하지 않고 불을 통해 징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 <양창보본>의 경우는 여러 신술을 보이다가 안 되자 일반 군사를 내려보내 징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다.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한편 정치의 주체가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천지왕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의 〈박봉춘본〉처럼 드물게 그 정치가 실패한 경우 자식인 소별왕이 다시금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와 자) 같은 자료에서는 볼로 하는 정치가 아닌 여러 가지 정치에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쨌든 천지왕은 신으로서 지상의 악인을 제거해 인간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천지왕의 행위가 실패하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방향이며, 창세신의 정치 실패가 굳이 포함되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에 의한 최종적인 정치 단계가 전승상 혼탁 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뒷부분에 선악의 유래가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 과정에서 비로소 생긴다고 했을 때 굳이 악의 정치가 긴요하지 않았기에 생겼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시는 인간 차지하야, 수명장자를 불너다가  
 네가 인간의 포악무도한 짓슬 만이 하니  
 용사할 수 업다하야 압밧디 벋텅걸나  
 뒗밧디 작지갈나, 참지전지한 연후에  
 빼와 고기를 비저서 허풍바람에 날이니  
 목이 파리 빈대 각다기 되어 나라가고  
 파가망신 식힌 후에, 인간이 버릇을 가르치고  
 복과 록을 마련하야, 선악을 구별하고  
 인간 차지 하옵내다.<sup>14)</sup>

위의 〈박봉춘본〉에서 보면 선악의 유래를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에서 속임수로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명장자를 정치하여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선악의 유래를 수명장자 정치에서 찾는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수명장자의 정치도 대소별왕이 각기 이승과 저승을 차지한 뒤 맨 끝부분에 위치하게 되면서 선악의 유래를 설명하는 형태로 연결시키고 있다.

14)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291면.

마지막으로 징치 결과는 일반적으로는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그 기반을 멸망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천지왕이 천신으로서 세상의 악을 정리하고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는 신화소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박봉춘본〉처럼 징치에 실패하고는 소별왕이 와서 다시금 징치하는 형태의 각편도 있고, 더 나아가 자료 다의 〈김두원본〉과 사의 〈이무생본〉에서는 결국 징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각편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 가)의 문창헌본과 같은 데서는 징치를 당하고는 개과천선해 다시 부자가 되는 자료가 있기도 하다. 이런 징치결과는 수명장자의 징치가 쉽지 않았으며, 징치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 막연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곧 수명장자는 한 악인의 징치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그로 인해 인간세상은 혼란이 정리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거듭났다는 것인지가 막연하다. 여기에서 동일한 인물 성격을 지닌 장자를 징치하는 〈장자못전설〉을 염두에 둔다면 비록 특정 지역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 곳이 함몰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도록 한다. 다음 장에서 살필 〈뤼카온 징치담〉에서도 단지 악인의 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의 혼돈과 악함, 그리고 신에 대한 불경 등을 원초적으로 제거하고자 홍수를 내려 인간세상을 멸하고자 한다.

창세신화에서 태초에 혼돈된 세상이 정리된 뒤 인간창조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혼돈을 겪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것이 인간세상의 재편이다. 신에게 불경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인류를 신이 노하여 물을 통해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세상을 구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불로 악인을 멸하는 것으로 표면상 나타나지만 수명장자로 대표되는 악한 인간세상을 재편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홍수신화로서 온전히 그 면모를 나타내지 못하고 다소 어정쩡하게 천상신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혼란을 정리할 아들을 낳는 결연의 수단으로 연결되면서 그 본질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수명장자의 징치 결과는 전체 각편들을 비교해보고 사건의 전개 및 〈장자못전설〉이나 악인을 징치하는 여타 신화 사례들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수명장자가 징치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자료 양상인 것으로 보이며,

징치에 실패하는 자료는 전승상의 혼탁 또는 변형으로 판단된다.

c는 수명장자 징치담이 축약된 형태의 자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도 아), 자), 카), 타) 등 다수가 있다. 이들 자료에서는 수명장자의 악행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 빌려주고는 좋은 곡식으로 돌려받는 행위 및 총명부인이 빌린 쌀을 씻어 정성껏 밥을 지어 천지왕에게 올리지만 모래를 씹게 되고, 그 소종래를 듣고 진노하는 과정만이 제시될 뿐이다. 따라서 징치 과정이나 징치 결과는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제사 끝난 뒤에 제상(祭床)에 차린 제물을 뜯어 문밖으로 던져 잡귀를 대접하는 결명신식 잡식법(雜食法)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제법(祭法)의 유래 부분만 제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런 법(法)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주병본>과 같은 경우에도 불난 데는 불직법이 마련된다고 하여 이런 징치 결과로 제법이 생긴 유래를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한편 이런 c의 형태도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a와 마찬가지로 수명장자 징치담이 자료의 일관성을 갖기보다는 확장할 수도 있고, 축약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빠져도 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김현선은 <천지왕본풀이>의 여러 각편을 살피면서 이처럼 고정적이지 않은 양상에 대해 천지개벽 부분과 수명장자 징치담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위의 자료 전반을 두고 살펴보았을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천지개벽과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갖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보다는 압축 또는 생략이 가능한 신화소로 파악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이 점은 김현선이 문제를 제기했던 수명장자 징치담 신화소의 이질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 신화소는 창세신화소로 판별하는 데 적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 딱히 창세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악인을 징치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징치 후에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생물기원담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악인 징치 이야기나 생물기원담은 민담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이므로 단순히 이들과 같은 유형의 민담

15) 김현선, 앞의 글, 122-3면.

이 창세신화에 이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창세신화에 민담적 소재가 차용되어 쓰였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창세신화의 변이로만 본다면, 이 신화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sup>16)</sup>

곧 나름의 중요한 신화적 성격이 있는가를 두고 의문을 품으면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공감의 가는 문제의 제기이다. 그런데 이 점은 천지개벽과 배타적 성격을 지닌 신화소이기 때문보다는 그 신화적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없어지거나 약화시켜도 무방하다고 인식되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이 신화소의 의미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도 맞닿아 있다. 악인의 징치가 어떤 신화적 성격을 지니기에 창세신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이 신화적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이처럼 넘나들이 가능한 신화소로 자리 잡았을까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머리말에서 제시했듯이 <장자뭇전설>을 조합해 생각하면서 홍수로 인한 세상의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 <장자뭇전설>과 같은 우리 자료에서도 이런 면모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리스·로마신화의 <튀카온 징치담>을 연결시켜 본다면 더욱 명확히 이 신화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튀카온 징치담>은 우리 자료의 수명장자에 해당하는 튀카온이라는 존재를 최고신 유피테르가 그 악행을 확인하고 불로 징치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으로, 유피테르가 그를 징치한 뒤 그것을 원인삼아 인간세상에 대홍수를 내려 인류가 멸절되고 선택받은 인류만이 새로운 인류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튀카온 징치담>과의 비교를 통해본 수명장자 징치담<sup>17)</sup>

16) 같은 글, 122면.

17) 심사과정에서 다소 황당한 지적이 있었다. 서구의 <튀카온징치담>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의 창세신화 중 장자징치담이 있는 <생긔>와 비교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긔>은 6개 무가 자료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켜 놓았을 뿐이며, <생긔> 자료 전부가 창세신화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곧 1) 창세신화(천지개벽, 석가와 미륵의 인세차지, 일월조정, 물과 불의 근본 찾기) 2) 성주무가(강박텍이와 모시각시의 대결담) 3) 득남형설화 4) 원백이설화(에밀레종설화, 손순매야) 5) 장자징치담 6) 제석본풀이 등이 모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각기 연계성이 없이 단지 연결된 형태로 묶여져 있을 뿐이다. <생긔>에 '장자징치담'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수명장자 징치담처럼 그것이 창세신화와 관련성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는 최고신 유피테르가 혼돈된 인간세상에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튀카온을 징치하는 내용의 신화가 담겨있다. 아르카디아를 다스리는 폭군 튀카온은 신에게 도전하고 인육을 구워 잔치를 벌이는 등 갖은 악행을 벌이는 인간으로, 유피테르에 의해 불로 징치되고, 그 징치 결과에 이어 신들이 상의하여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게 된다.

먼저 수명장자 징치담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유피테르의 〈튀카온 징치담〉 내용을 요약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피테르(제우스)신이 튀카온의 잔혹한 악행 소문을 듣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세상에 내려간다.
2. 악명 높은 아르카디아 폭군의 땅으로 들어가며 제우스는 자신이 신임을 암시를 하자 백성들은 유피테르를 경배하고 기도한다.
3. 하지만 튀카온은 유피테르가 신인지 인간인지 시험해보겠다면서 “죽여보고 안 죽으면 신임을 인정하고 죽으면 인간일 테니 그 주검으로 요리를 만들어 잔치를 베풀겠다”고 한다.
4. 유피테르가 모습을 감추어 사라지자 포로 하나를 끌어내 목을 자르고는 그 수족을 잘라서 인육으로 잔치상을 마련한다.<sup>18)</sup>
5. 유피테르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 집을 불로 태워 징치한다.
6. 기겁을 하고 도망치며 고함치는 튀카온을 유피테르가 늑대로 만들어버린다.
7. 유피테르는 신들을 소집해 인간들을 멸하기로 하고 인간세상에 홍수를 내려 인간을 멸망시키게 된다.<sup>19)</sup>

있는 것은 아니며, 여타 자료 예컨대 〈장자못전설〉이 무속신화로 편입된 양상을 보이는 함흥 무녀 이고분의 〈성주〉 무가와 같은 성격의 자료로 파악해야 한다.

그저 무가자료를 단순하게 겉모습을 보고 대충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도에서 우리나라 장자징치담 성격을 지닌 자료들, 곧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이공본풀이〉의 자인장자, 〈생긔〉의 천년두레천년장자, 〈성주긔〉의 장재아비, 〈성인노리푸념〉의 당주애비, 〈장자풀이〉의 사마장자를 비롯해 무속신화는 아니지만 〈장자못전설〉까지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다루는 관점이 필요하여 「무속신화에 나타난 장자형 인물의 존재 양상과 전형성」이라는 논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18) 튀카온이 유피테르를 시험하고자 막내아들의 내장으로 음식을 만들어 상에 올리자 유피테르가 진노하여 벼락으로 징벌을 내렸다고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version을 따르기로 한다.

19) 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I』, 민음사, 2013, 24-30면.

이런 내용의 〈튀카온 정치담〉은 여러 모로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정치담과 닮아 있다. 인물의 설정은 물론 정치의 까닭, 정치 수단, 정치 결과 등 그 사건의 전개도 아주 흡사하며, 그것이 혼돈된 인간세상을 재편하는 과정의 하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그 성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면 수명장자 정치담과 〈튀카온 정치담〉을 인물 성격과 사건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신화적 성격 등을 관련지어 보도록 하겠다.

### 1) 인물의 비교

〈튀카온 정치담〉과 수명장자 정치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갖은 악행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형 인물이고, 둘째는 신의 세계에서 소문을 듣고 내려와 그의 악행을 확인하고는 불을 이용해 징치하는 신(神)이며, 셋째는 부(富)와 권력을 기반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인간들 부류이다. 두 신화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 세 부류의 인물들이 서로 대결을 벌이거나 갈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세 부류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튀카온 = 수명장자<sup>20)</sup>

나. 유피테르 = 천지왕

다. 아르카디아 백성들, 포로 = 총맹부인

먼저 가)에 해당하는 튀카온과 수명장자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우선 이들은 지상에 존재하면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

20) 수명장자를 비롯한 장자를 악인 개인이기보다는 집단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박종성, 앞의 글; 신호림, 「〈장자풀이〉의 서사적 지향과 제의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튀카온의 경우 그 악인적 존재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튀카온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악을 행하는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지역의 통치집단으로 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인류를 멸절시키는 홍수의 원인이 되기에 인류 보편의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과 대비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을 쥐고 사람들을 멍대로 못살게 굴며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는 악인형 인물이다. 아르카디아의 폭군 튀카온은 유피테르가 신적 존재임을 비쳤음에도 신이면 안 죽을 것이고 사람이면 죽을 것이니 그 주검으로 요리를 해먹겠다고 욕박지른다. 신을 무시하고 신에 대해 도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포로로 잡힌 몰모로스 백성을 죽여 인육으로 잔치를 벌이는 등 아주 잔혹한 행위를 일삼으며, 백성들을 폭압으로 다스린다. 한편 수명장자는 자신을 징치하러 온 천지와 대결을 벌이고 맞서는 존재이다. 심지어 〈박몽춘본〉과 같은 데에서는 “수명장자가 하로는 천왕께 향하여 아뢰되 이 세상에 날 잡아갈 자도 있으리야 호담을 하니”라고 한 것과 같이 천신에게 대놓고 도발하는 불경을 저지르며, 천지왕은 이런 수명장자를 꽤심히 여겨 그를 징치하고자 인간세상으로 일만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오게 된다. 아울러 수명장자는 장자라 일컬어질 정도의 부자임에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밥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저승에 가서 제삿날 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야 밥을 주며, 죽은 뒤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리고 곡식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불쌍한 이웃에게 속임수를 써서 이익을 얻는 등의 악행을 자행하는 인물이다.<sup>21)</sup> 곧 부와 권력을 이용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응당 신에 의해 징치되어야 할 존재로 설정된 인물이다.

이렇듯 가) 인물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신에 대한 도전이다. 튀카온은 유피테르가 신임을 밝혔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잔혹하게 죽이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수명장자 또한 신에 대해 도전하려고 하거나 신임을 알면서도 대결을 벌이는 존재이다. 둘째로는 힘없는 자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악인이다. 튀카온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잡혀온 포로를 죽여서 그 인육을 삶고 구워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며, 수명장자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면서 괴롭히고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끼니도 제공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런 악행을 저질러 인간세상을 혼란함에 빠뜨리는 존재이기

21) 김현선, 앞의 글, 122면.

에 이들은 최고신 또는 천상신에 의해 불로 징치되는 공통점을 지니며, 특히 〈뤼카온 징치담〉에서 최고신 유피테르는 홍수를 일으키고, 그 홍수를 통해 인간세상을 재편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이들은 신의 징치를 받아 동물 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으로 변하는 벌을 받는 모습도 공유하고 있다. 뤼카온은 광포한 성정이 모여 털이 생겨나고 괴물의 주둥이가 되어 결국 늑대로 변하게 된다.<sup>22)</sup> 수명장자는 몇몇 각편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박봉춘본〉의 경우 수명장자가 응징되어 모기, 파리, 빈대, 각다귀 등이 되었다고 하며, 〈정주병본〉에서는 수명장자와 마찬가지로 악행을 벌이는 자식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한 것에 걸맞게 팔벌레, 소리개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징치의 벌로 그의 거주영역은 불에 타버리고 악인 스스로는 고통스런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변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도 동일하다.

다음으로 나)에 해당하는 유피테르와 천지왕은 신들의 세계를 관장하는 최고신이며, 인간세상의 혼돈 및 그 혼돈을 조장하는 악인을 묵과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과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신은 신들의 위계상 최고신에 해당하며, 인간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 직접 간여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다. 〈뤼카온 징치담〉에서 유피테르는 명실상부한 신들의 지존이고 뤼카온의 징치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한 인간세상의 재편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최고신이다. 천지왕은 각편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천상신으로서 우주질서 및 인간세상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복수의 일월을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을 나눠 다스릴 아들을 출생시키는 한편 인간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장자를 물리쳐 줌으로써 혼란된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다만 몇몇 각편에서 그 신적인 능력과 기능을 자식과 나눠 갖기도 하고, 징치에 실패하여 절대신으로서의 위엄이 의심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각편의 변이로 보일 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2) 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앞의 책, 29면.

한편 유피테르와 천지왕은 악인을 징치하는 방식이나 수단도 유사하다. 곧 불과 벼락 등을 이용해 그 근거지를 멸하고, 악인은 짐승이나 해충으로 만들어 버린다. 유피테르는 그 자체로 벼락의 신이기도 하며, 튀카온의 악행을 확인하고는 불길을 일으켜 그 집과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마저 태워 없앤다. 그리고는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튀카온을 울부짖는 이리로 만들어 버린다. 천지왕 또한 수명장자의 악행을 확인하고는 하늘로부터 벼락스제, 화덕진군, 우레장군 등을 불러내려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워 버린다. 그리고 수명장자를 해충으로 만들기도 하고 수명장자와 함께 악행을 일삼는 자식들 또한 팔벌레와 소리개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많은 자료에서 이처럼 자연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그 징치하는 방식의 사유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도 있다. <튀카온 징치담>에서는 그 징치가 튀카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피테르는 튀카온의 악행이 인간들이 모두 한 통속으로 죄업을 쌓은 결과로 판단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홍수를 내려 인간들을 심판할 뜻을 분명히 한다. 곧 악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반면 수명장자 징치담에서는 개인의 징치로 끝난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인간세상의 혼돈을 정리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와 달이 두 개씩 떠있고 이승과 저승, 사람과 귀신이 구분이 되지 않는 등의 이 세상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하는데 따른 원초적인 혼돈을 정리하는 형태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튀카온 징치담>에 비춰본다면 이런 수명장자 징치담은 신화소들 간의 구성이나 연결에 있어 이질적인 면이 있음이 분명하다. 세상이 온전히 생겨나지도 않았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인간부터 징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곧 수명장자 징치담은 인류가 시작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인간세상이 자리를 잡고 난 뒤 신을 숭배하지 않거나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악이 만연할 때 등장하는 신화소여야 할 텐데, 잘못되어 태초의 창세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튀카온 징치담>을 참고삼아 보면 그 성격이 인류 생존 이후의 홍수설화가 전승과정상 약화되거나 모호해지면서 창세

신화에 끼어들어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악인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악인이 통치하는 또는 거주하는 영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악행을 인정하고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그들 스스로는 그의 악행에 대해 거스르거나 항거할 힘이 없어 그저 순응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그 징치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그의 악행을 소문내거나 실상이 어떤지를 신에게 고해 바쳐 신이 징치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뤼카온 징치담>이나 수명장자 징치담에서 징벌을 내리는 신은 그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피테르는 뤼카온이 인육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으며, 천지왕은 수명장자의 부친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아들의 악행을 고해바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인간세상으로 온다. 그 소문과 실상이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고 징벌을 내린다. 이외에 수명장자 징치담의 경우 총맹부인이 해준 밥에서 모래를 씹고는 그 까닭을 묻고 악행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수명장자를 징치하러 나서게 되기도 한다.

이렇듯 다)의 인물은 징치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악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이상 두 자료의 주요 인물군을 비교해보았다. 징치자, 징치 대상자, 징치동기 부여자 등이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들 인물 간의 성격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양자 사이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그 징치가 징치 대상자 개인으로 한정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 보편으로 확대되는 더 큰 응징이 뒤따르게 되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이다. 곧 <뤼카온 징치담>은 인류 재시작의 성격을 갖는 홍수의 원인담 성격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점은 수명장자 징치담의 모호한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악인 징치담이 창세신화에 포함되어 있는지 풀지 못한 숙제 중 하나였는데, <뤼카온 징치담>을 매개로 생각한다면 수명장자 징치담 또한 인류 재편의 홍수신화 성격을 지녔기에 인류 혼돈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창세신화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2) 사건의 비교

위의 인물 비교를 통해 두 정치담의 인물 설정이 아주 흡사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자 모두 전체적인 내용이 악인을 정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이기에 정치 원인, 정치 방식, 정치 결과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양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가. 정치 원인

나. 정치 방식

다. 정치 결과

먼저 가)의 정치 원인은 뤼카온이나 수명장자 모두 인간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신의 세계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도를 지나쳤고, 그 악행을 간과할 수 없어 신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게 된 것이다. 유피테르는 “아랫도리가 뱀인 백수거인(白手巨人)들이 천계(天界)를 노릴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sup>23)</sup> 천지왕은 수명장자가 무도막심하고 사나워 다른 인간들이 욕을 보아도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sup>24)</sup> 물론 인간세상에서 행해지는 악행의 양상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 뤼카온 정치담에서 뤼카온은 유피테르가 신임을 알면서도 시험하고 도발하며,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다스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여 그 인육으로 잔치를 벌이는 악행을 자행한다. 수명장자 정치담에서도 “잡아갈 테면 잡아가보라”며 천왕께 도발하고 정치하러 온 천지왕과는 대결을 벌인다. 그리고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패륜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면서 모래를 섞어 엄청난 이득을 얻는 악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이런 악행을 신의 입장에서는 용서하기 어렵다. 신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 악행이 도가 지나쳐 인간세상의 혼란이 통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23) 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앞의 책, 26면.

24)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앞의 책, 288면.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깨졌고 악이 만연해 온전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인간세상의 악과 혼돈을 정리하고자 신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징치방식으로는 신이 불을 이용해 소멸시키는 방식을 보이는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인들의 악행은 신의 세계에까지 이미 전해져 있어 신이 반드시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여 신이 내려오게 되며, 인간세상에서 그들의 악행을 확인한 뒤에 징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피테르는 튀카온의 악행을 확인하고는 바로 불을 일으켜 사악한 터에 자리한 집을 그 집 수호신과 함께 태워버리며, 천지왕은 일만 군사를 내려오게 하거나 신술(神術)을 이용하기도 하며, 무쇠철망을 씌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징치방식을 보이지만 결국 천상으로부터 화덕진군과 벼락사제 등을 불러 불로 징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악인들을 징치하는 한 방식으로 불에 의한 징치가 많다. 신이 노하여 인간을 멸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물과 불이다. 불로 징치하는 사례는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볼리비아의 유루카레족을 멸하는 데<sup>25)</sup>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인류 전체를 범위로 징벌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악인들을 멸절시키는데 흔히 활용된다. 그에 반해 신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흔히 이용하는 방식은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신이 노하여 물로써 세상을 멸하고자 하는 방식은 〈튀카온 징치담〉에 뒤이어 나타나는 홍수신화, 성서의 〈노아의 방주〉, 바빌로니아의 홍수신화 등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신화에서 거의 공식처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악인의 근거지는 불로 태워 소멸시키지만 악인과 그 가족은 짐승이나 벌레로 만들어버린다. 특히 그 행위에 걸맞는 짐승이나 벌레 모습을 갖게 된다. 튀카온은 도망가다 털이 생겨나고 고함을 지르는 늑대가 되었고, 수명장자는 모기, 파리와 같은 해충이 되기도 하고 물을 주지 않은 아들은 물을 잘 못먹는 소리개, 못쓸 음식을 종에게 준 딸은 순가락을 꽂아 팔벌레가 되도록

25) 볼리비아의 유루카레족은 악령 아이마수네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늘 아래 수풀, 짐승, 인간들 등 모든 것이 죽고 말았다고 한다. 필립 프렌드, 김문호 역, 『창조신화』, 정신세계사, 2005, 21면.

하는 등 징치로 인한 별로 변신한 존재 또한 대체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수명장자의 경우 각편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나) 또한 대체로 같은 형식의 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의 징치 결과가 이 두 자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뤼카온 징치담의 경우는 홍수신화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징치 결과가 뒤따르는 반면, 수명장자의 경우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 수명장자 징치담의 경우 징치한 결과 인간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가 없다. 수명장자가 징치되었거나 징치되지 못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다수이며, 개과천선하여 다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마무리 짓기도 한다. 신이 개입해 혼돈을 정리했음에도 그 결과로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다만 〈박봉춘본〉의 경우 수명장자 징치의 결과로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정도이다.

그에 반해 〈뤼카온 징치담〉은 악인을 징치했다고 해서 인간세상에 만연한 악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유피테르는 생각한다. 그래서 신들에게 동의를 얻어 홍수를 내려 인간세상을 멸하고자 한다. 인간세상의 재편이며, 신에게 선택된 착한 인간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성격을 갖게 한다. 곧 악인의 징치는 개인의 징치가 아닌 인류 재편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은 창세신화에서 인간세상의 혼란을 초래한 악인을 징치하는 것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때문에 단지 수명장자라는 악인에 대한 징치 곧 개인의 징치로 끝나고 만다. 창세신화에 악인의 징치가 들어있는 것은 그저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 하나를 징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국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곧 오랜 기간 전승되면서 그 과정상 본래 기능이나 면모가 탈락 또는 혼탁되어 애매하게 다른 신화소와 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4. 수명장자 징치담의 신화적 성격과 의미

수명장자 징치담은 〈천지왕본풀이〉의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다소 이질적이며, 그 성격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장(章)에서는 수명장자 징치담의 이질성을 앞의 장(章)에서 살핀 바들을 바탕으로 수명장자 징치담의 성격과 의미를 찾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 핵심이 되는 바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 수명장자 징치담은 필연적 신화소인가?

나. 수명장자 징치담은 어떤 성격이기에 창세신화에 포함되어 나타나는가?

먼저 가)의 질문은 수명장자 징치담의 이질적인 면모와도 무관하지 않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천지왕본풀이〉의 여타 신화소와 연계되는 양상에 있어서나 그 구성의 적절성에 있어 의문이 있다. 특히 창세신이 악인을 징치하는 것이 그 기능상 창세신화에서 모호하게 결합되어 있고, 여타 신화소에 비해 각 편들마다 아주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이는 점 또한 이 신화소가 필연적인 요소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에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대부분의 〈천지왕본풀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신화소로 기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신화소인가? 필연적인 신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대중본〉이나 〈강일생본〉과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수명장자 징치담이 빠진다고 해서 그 서사적 구성이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중춘본〉을 비롯한 여러 각편에서 볼 수 있듯이 징치방식이나 과정 등을 압축시켜도 무방한 유연성을 지닌 신화소이기도 하며, 징치 주체, 징치 원인, 징치방식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화소로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수명장자 징치담은 왜 이처럼 불안정한 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수명장자 징치담이라는 신화소가 왜 창세신화에 포함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나)의 질문과 연결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명장자 징치담이 어떤 신화적 성격을 지닌 신화소인가를 밝히는 것



과 연관되기도 한다.

수명장자 징치담의 성격은 흡사한 내용을 보이는 <뤼카온 징치담>과의 차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 두 자료는 전반적인 내용이나 성격은 같으나 <뤼카온 징치담>은 뤼카온이라는 개인의 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도전하고 악이 만연한 인간세상을 멸망시킨 뒤 인류가 재시작하는 성격으로까지 진행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수명장자 징치담 또한 이런 인간세상의 재편 성격을 지닌 신화소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 혼돈 :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혼돈. 일월조정, 인세차지, 선악의 유래, 사람과 귀신의 구분 등

2단계 혼돈 : 인간이 세상에 자리잡은 뒤 악이 만연하고 신에 대해 불경함으로 인해 생기는 혼돈

창세신화에서 혼돈을 정리하는 양상은 위에 제시한 것처럼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명장자 징치담에서 천지왕은 총맹부인과의 결합을 통해 이 세상의 혼돈을 정리할 대별왕과 소별왕을 출생시키고자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1단계의 혼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한다. 태초에 세상이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천체의 혼돈, 이승과 저승의 구분, 사람과 귀신의 구분 등 원초적인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이어야 마땅한데, 인간세상이 자리 잡고 난 뒤에 생기는 혼돈을 없애는 2단계의 혼돈 화소가 섞여서 이상하게 결합된 모습이다. 그 순서가 어긋나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왜 이 신화소가 창세신화에 이처럼 포함되었는지도 막연하고, 그 구성이나 내용도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태초에 이루어지는 혼돈 정리와 인간세상이 자리 잡고 나서 생겨난 혼돈은 다 같이 세상 혼돈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계선상에 있기는 하다. 곧 태초의 창조과정에서의 혼돈을 정리하는 것과 인간세상이 자리

잡고 나서 생겨난 혼돈을 정리하는 것은 그 성격이나 본질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지만 혼돈을 정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전승과정상 혼탁이나 탈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기면 모호하게 결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유사한 성격과 내용을 보이는 <튀카온 징치담>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물이나 사건의 전개는 대체로 대응되나 신에게 불경하고 사악해진 인간들을 멸절시키는 홍수신화의 발단이 되는 것이 없는 점이 차이임을 지적했다. 이런 차이점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의 본래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수신화는 이미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자리 잡고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의 중요 신화소인 일월조정, 인세차지, 선악의 유래 등은 인간세상이 온전히 자리 잡기 이전의 혼돈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우주의 정돈이 이루어지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자리를 잡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악인을 징치하는 홍수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들의 인세차지 및 선악의 유래, 인간과 귀신의 구분 등 1단계 혼돈이 정비되고 그에 따라 인간세상이 자리를 잡은 후, 2단계 인간들이 신에 대해 불경하고 악이 만연하게 되면서 생기는 인간세상의 혼돈을 풀고자 홍수를 일으켜 새로운 인간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신의 의지이다.<sup>26)</sup> 곧 세계 곳곳의 홍수신화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양상이다.<sup>27)</sup> 이런 2단계 혼돈을 정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곧 수명장자 징치담 일 것인데, 그 본래적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내용이나 구성상 각기 변형도 심하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곧 수명장자 징치담은 여타 일월조정이나 인세차지와 같은 태초의 혼돈과 연관되기보다는 <천지왕본풀이>에서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창조 및 시작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류 징치에 따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그런 흔적마

26) 인류 징치가 홍수가 아닌 불로 징치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필립 프린드는 '불과 홍수'라고 하여 불에 의한 세상 재편과 홍수에 의한 세상 재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성격의 것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 필립 프린드, 앞의 책, 19-31면.

27) J.G.프레이저, 이양구 역, 『구약시대의 인류민속학』, 강천, 1996, 149-319면. 이 책에서 세계의 곳곳의 홍수신화 사례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저도 찾기 어렵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신에게 선택받거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요소도 없다. 따라서 <장자못전설>과 같은 징치담과 연결 짓는 정도에서 홍수신화의 가능성만 제시하고 마는 형편이었다. 그렇기에 수명장자 신화소가 인류 재편의 신화소라는 성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가 전승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홍수신화소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본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수명장자 징치담과 같은 데에 원래는 결부되어 있었으나 흔착되고 뒤섞이면서 새로운 인류기원 신화소가 탈락되고 만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어떻게 제주도에 인류 재편의 홍수신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튀카온 징치담>을 염두에 둔다면 그 대신 홍수신화의 전조에 해당하는 악인 혹은 그 세력에 대한 징치가 창세신화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만은 분명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육지에서 전승되는 우리의 홍수신화도 그다지 전승이 온전해 보이지는 않는다. 홍수 원인이 강조되는 형태의 자료가 있는가 하면 홍수결과가 강조되는 형태의 자료도 있어 구분되어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sup>28)</sup> 예컨대 홍수기원담 성격의 <장자못전설>과 같은 자료도 홍수로 함몰되고 마는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만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이런 홍수원인담 성격만 간직한 채 <천지왕본풀이>에 결합되어 전승되는 형국이다.

물론 보다 과감한 유추가 가능하다면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연과 대별왕과 소별왕의 부(父) 탐색여행 등의 부분은 신에 의한 인류의 새로운 선택의 성격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조현설은 동아시아 홍수신화의 양상이 남매혼형(男妹婚型)과 인신혼형(人神婚型)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sup>29)</sup> 수명장자 징치담이 물에 의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는

28) 권태효,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설화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b. 이 글에서는 홍수원인형 자료로 <장자못설화>, <돌부처 눈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을, 홍수결과형 자료로는 <남매혼설화>, <나무도령과 홍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29) 조현설, 「동아시아 인신혼형 홍수설화의 구조적 탐색」,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에서 중국 신화학자 도양(陶陽)과 종수(鍾秀)의 『중국창세신화』의 대홍수 후 남녀 결합방식을 제시한 것을 토대로 홍수신화의 양상을 남매혼형과 인신혼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과 중국 홍수신화를 이런 형태로 분류 접근한 글로는 정소화, 「인류재창조형 홍수신화 비교 연구 : 이족 4대 창세기

성격과 결부된다면 홍수 후 인간세상의 선택받은 남자가 하늘의 천녀를 얻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인신혼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천상계와 지상계 남녀의 결합, 부(父)로부터 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 통과는 천상계 아내를 얻기 위해 여러 시험을 거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곧 사악해진 인류의 징치 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천상계 여행을 통해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을 통해 혼인을 함으로써 찾는데, 이런 양상이 도치되면서 총명 부인과의 결합을 통해 혼돈을 정리할 두 아들을 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 5. 마무리

김현선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수명장자 징치담의 성격이 홍수신화의 흔적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은 이 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면모에 접근하고자 다양한 자료 양상을 보이는 수명장자 징치담을 살폈고, 아울러 홍수신화의 발단이 되는 그리스 〈튀카온 징치담〉과 비교함으로써 이런 가능성의 제시가 적절하다는 것임을 논의하고자 했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수명장자는 신에게 불경하고 부모에게는 불효하며,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이다. 이런 악인형 인물의 징치는 대체로 창세신화에서 인간세상의 혼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홍수범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하지만 수명장자 징치담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세상이 자리 잡고 난 뒤에 나타나는 징치가 아닌 태초의 창세과정에서 생기는 혼돈을 정리하는 과업의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여타 화소보다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성이 있고, 변형이 심한 신화소이다. 곧 탈락이나 축약이 가능한 신화소로 나타나며, 징치 주체나 징치 동기, 징치 방식 등에 있어서도 자료들마다 편차가 아주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승 과정상 많은 변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박봉춘본〉이다. 선악(善

---


홍수자료와 한국 홍수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8, 중국인문학회, 2014.12가 있다.

惡)의 유래가 소별왕과 대별왕과 대결시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이승을 차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 여타 자료와 달리 〈박봉춘본〉에서는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면서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점은 수명장자의 징치 부분이 그 구성이나 내용의 전개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조정한 데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내용의 전개가 사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수명장자의 징치 또한 천지왕이 실패하고 나중에 소별왕이 다시 징치하는 형태로 전개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수명장자 징치담을 창세신화 전승 속에서 어떻게 정돈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다양한 각편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유사한 인물 설정 및 사건 전개 양상을 보이는 〈뤼카온 징치담〉을 잣대로 삼아 그 성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각도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수명장자 징치담이 필연적인 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각편들을 살펴 파악했다. 곧 〈천지왕본풀이〉 자료를 수명장자 징치담이 없는 각편, 수명장자 징치담이 특히 발달된 각편, 수명장자의 악행 위주로 축약된 각편 등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수명장자 징치담이 유연성이 있는 신화소에 해당하며, 여러모로 변화가 가능했던 신화소임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물 설정과 사건 전개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뤼카온 징치담과 비교하면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뤼카온 징치담〉은 홍수에 의한 인류 재편의 신화적 성격을 지닌 자료임에 비해 수명장자 징치담은 단순히 악인 개인의 징치로 끝나고 말아 그 신화적 성격이 막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뤼카온 징치담〉의 성격을 참고하면서 수명장자의 징치가 비록 지금 자료들에서 개인의 징치에 국한되어 끝나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그 성격상 인류 재편의 성격을 지닌 신화소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비록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성격을 지닌 신화적 면모는 제주도신화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가능성만은 제기해두었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중요한 신화적 성격과 의미가 있는 신화소이다. 특히 홍수에 따른 인류 재편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신화적 의미나

비중은 아주 크다. 실상 악인을 징치하는 유사한 성격의 장자 징치담이 제주도 수명장자 징치담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공본풀이>의 자인장자, <생긔>의 천년두레천년장자, <성주긔>의 장재아비, <성인노리푸념>의 당주애비, <장자풀이>의 사마장자 등 다양한 장자 징치담 자료가 제주도는 물론 육지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이런 장자형 인물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된다. 이들 자료와 비교 또는 관계 정립을 통해 수명장자 징치담의 성격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251-282면.
-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a, 49-97면.
- , 「〈돌부처 눈 붙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설화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b, 307-347면.
- 김현선,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85-132면.
- , 「〈베포도엮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比較民俗學』 28, 비교민속학회, 2005.2, 239-269면.
- , 「한국 홍수설화의 위상과 비교설화학적 의미」, 『민속학연구』 31, 국립민속박물관, 2012.12, 109-133면.
- 문무병,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현암사, 1999.
- 신연우, 「제주도 초감제 신화와 뿔의 문제」, 『한국무속학』 29, 한국무속학회, 2014.8, 143-171면.
- 신호림, 「〈장자풀이〉의 서사적 지향과 제의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153-180면.
- 장주근, 『韓國の民間信仰-資料篇』, 동경: 금화사, 1973.
- 정소화, 「인류재창조형 홍수신화 비교연구 : 이족 4대 창세기 홍수자료와 한국 홍수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8, 중국인문학회, 2014.12, 439-436면.
-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조현설, 「동아시아 인신혼형 홍수설화의 구조적 탐색」,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395-425면.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 ,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3.
- ,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의 무속(상)』, 동문선, 1991.
- J. G. 프레이저, 이양구 역, 『구약시대의 인류민속학』, 강천, 1996.
- 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I』, 민음사, 2013.
- 필립 프런드, 김문호 역, 『창조신화』, 정신세계사, 2005.

【Abstract】

The Aspects of materials and the mythical character of the  
punishment story of Sumyeong-jangja in Jeju Island

Kwon Tae-hyo\*

A rich man named Sumyeong, appearing in *Chunjiwang-bonpuri* of Jeju Island, is a typical evil figure who does not respect God, is irrelevant to his parents, and afflicts the poor. The story of punishing such a Sumyeong-jangja appears as one of the tasks of sorting out the chaos that arises from the beginning process of the beginning and shows a more fluid and deformed myth element than the other myth elements of *Chunjiwang-bonpuri*. It is a mythical element that can be eliminated or reduced rather than fixed, and it is judged that there were many variations in the transmission process due to the large variation in the data in the subject of punishment, the motive of punishment and the punishment meth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data versions of *Chunjiwang-bonpuri* to see that the story of punishing Sumyeong-jangja is not an inevitable motif, and the version does not have a story about punishing Sumyeong-jangja. Version, and Sumyeong-jangja's abbreviated version.

In contrast to the story of the punishment of Lykaon of Greek mythology, which is similar in character setting and identical plot, the story of his punishment is a mythological character of the reorganization of mankind by flood, whereas the story of punishing Sumyeong-jangja. Although the mythical personality has been vaguely transformed by the punishment of the evil human individual, it is possible that it was a mythical element with the character of the reorganization of mankind based on the stories of punishment of the bad wealthy of the legend.

Keywords: *Chunjiwang-bonpuri*, Creation myth, Flood myth, Sumyeong-jangja, A punishment story of evil rich, A punishment story of Lykaon of Greek mythology.

---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enior Curator.



접수일: 2017.03.31 || 심사일: 2017.10.12 || 게재확정일: 2017.11.10

K C I